

# 정의선 “인도 특화 전기차 개발… 클린 모빌리티 선도할 것”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HYUNDAI MOTOR GROUP

8개월만에 인도 재방문  
“인도,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

현대차, 내년 푸네에 신공장 완공  
첸나이 공장과 100만대 생산체제  
기아와 합산 약 150만대 생산 가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8개월 만에 전격 방문해 현지 전략을 공유했다.

정 회장이 인도 시장에 공들이는 이유는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세계 3위로 올라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내 판매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 판매 부진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인도권역 현지 직원들의 ‘셀피’ 요청을 받고 촬영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기온시에 위치한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장기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인도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전동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2030년까지 인도의 클린 모빌리티를 선도할 것”이라고는 구상을 밝혔다.

인도는 국내 다음으로 최대의 생산기지다. 현대차는 푸네에 20만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푸네공장이 완공되면 첸나이공장(82만4000대)과 푸네공장을 주축으로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기아도 올해 상반기에는 생산능력이 43만1000대로 확대된다. 이를 합산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약 150만대 생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동화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인도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인도 첫 현지생산 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말 첸나이공장에서 SUV 전기차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한다. 현대차 판매 네트워크 거점을 활용해 2030년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485개까지 확대한다. 기아도 2025년부터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전기를 생산하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2026년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는 현대차는 ‘2030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소 5억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고, 3년 안에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최대 100%인 수입 전기차 관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테슬라, BYD 등 세계 1·2위 전기차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 회장은 인도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정 회장이 해외에서 직접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1시간으로 예정됐지만 30분 이상 연장됐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타운홀미팅은 인도 전 지역 직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과 현장 즉석 질문들로 진행됐다. 인도에 대한 비전, 현대차 성장 요인, 인도 전기차 사업 계획 등 사업 현안에 대한 질의부터, 정의선 회장의 일상 관련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직접 만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싶었다”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인도권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최태원, 젠슨 황과 AI 반도체 동맹 강화

〈SK그룹 회장〉 〈엔비디아 CEO〉

美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 회동  
SNS에 젠슨 황과 찍은 사진 게시  
젠슨 황 “AI와 인류미래 함께 만들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젠슨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혁신의 순간을 포착할 때는 카메라 각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최 회장에게 선물한 책자에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AI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자신의 사인을 남겼다.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짧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CEO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고대역폭메모리)를 납품 중이다. 두 사람은 이번에 HBM 등 AI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최태원 회장 SNS 갈무리

## 李 旼奎에서 ‘추미애 국회의원’ 여론 조성

≫ 1면 ‘巨野 민주당, 22대 국회’서 계속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니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중재와 설득보다 야당의 필수 입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며 여론을 조성하는 글을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산의 대상에게 ‘협치’와 ‘타협’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오해”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